

# 생산제일주의에 희생된 산재사망 열사들을 기리며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백서 Ⅰ, Ⅱ, Ⅲ권(1974~2025)」

임용현 상임활동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발주로 진행된 이번 연구보고서 작업은 1974년부터 2025년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사건별로 재구성한 방대한 기록물이다. 단일 조선소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중공업에서는 1974년 창사 이래 604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숨졌다. 이는 백서팀이 현대중공업지부로부터 입수한 재해조사서 등 사고 관련 기록과 각각 원청노조 및 하청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의 소식지인 <민주항해>, <사내하청노동자>에서 발췌한 중대재해 소식, 그 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중대재해 소식을 일일이 확인해 재집계한 숫자다. 지난 52년간 현대중공업에서 배 만들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 소식이 매달 한 번씩 어김없이 들려온 셈이다.

## 배 만들다 죽어간 604명 노동자들

백서 작업은 재해발생일 순으로 개별 사건들을 차곡차곡 읽고 한 편의 서사로 풀어내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백서팀이 확보한 중대재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개요를 작성한 다음, 사고 내용을 육하원칙에 근거해 가급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사고가 발생한 기술적, 관리적, 구조적 요인을 살펴보고, 그다음에는 응급조치 및 대응상 문제점이 없는지, 수립된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노동조합의 대응 과정은 어땠는지를 차례차례 들여다봤다. 이렇게 재구성한 개별 중대재해 사고 기록의 말미에는 연구자 겸토의견을 덧붙였다.

사고 기록의 재구성은 대부분 현대중공업지부가 보관 중인 중대재해 조사 자료집에 의존해 수행됐다. 사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직·간접적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가장 확실한 출처는 다름 아닌 현대중공업일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위험을 상시·지속적으로 보고받고 대응해 온 주체인 노동조합에 제공한 자료는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함량 미달이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사고 대응 역량과 의지에 따라 백서팀이

손에 절 수 있는 정보의 수준에도 편차가 발생했다.

예컨대 중대재해 발생 시 조직을 비상하게 가동할 수 있는 체계는 잘 갖추고 있는지, 사고 수습을 넘어 재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 자원과 역량이 얼마나 투여되었는지, 하청노조나 지역사회와의 공동대응은 뒷받침되었는지 등은 당시 현대중공업지부의 조직 상황에 따라 그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노동안전 담당자의 경험과 전문성도 물론 사고 대응에 중요한 요소이겠으나, 무엇보다 중대재해는 회사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구멍난 일상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인식이 더없이 중요했다.



▲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백서 I, II, III권 (2025)

### 반복되는 죽음의 원인을 가늠해보는 창이 되길

개인적으로는 현대중공업에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선행의장부, 선체건조부, 해양사업부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이 백서 작업에 몰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당시 내가 일했던 부서들은 하나같이 야외에서 선체 건조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소위 ‘외업(外業)’ 부문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한 곳이었다. 특히 이 시기는 수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PE장(선행탑재)과 도크장마다 선각 블록들이 빈틈없이 즐비했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일감을 소화하기 위해 하청의 재하청(물량팀) 구조가 확산하고 있었다. 백서 작업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어쩌면 내가 겪었을 수도 있는 사고 상황을 빛바랜 노보 지면으로 접했을 때였다.

조선업 호황기 현대중공업에서는 빠듯한 진수 일정을 맞추느라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한 공간에서 화기, 도장, 용접, 사상 등 여러 공정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혼재작업’이 일상화돼 있었다. 나 역시 협소한 밀폐구역에서 여러 작업 인원과 뒤섞여 화기 작업을 하다가 큰 불을 낼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나마 개별 공정 수준에서는 통제 범위 안에 있던 위험이 이처럼 한 데 맞물려 증폭될 때, 보호구를 착용한 채 각자의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불씨가 튀어오르는지, 유해가스가 새어나오는지 제때 포착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며 일에 매달리는 게 당연했던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떨어져 죽고, 맞아 죽고, 끼여 죽고, 또한 과로사, 과로자살로 쓰러져 죽었다. 위험을 통제할 권한이 전무하다시피 한 하청노동자들의 부고 소식이 2000년대 들어 부쩍 잦아졌음을 두말할 나위 없는 얘기다. 이 백서가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만들다 죽어간 604명 노동자에 대한 간곡한 추념이자, 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가늠해볼 수 있는 창이 되길 바란다. 일터